

## 한국어

미국 오하이오 데이튼에서는 지역환경 및 사회정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아니스트의 세 지부가 협력하고 있습니다. 데이튼 마리아니스트 가족 협의회(Dayton Marianist Family Council)가 몇 달 간 진행했던 탐색적인 대화는 선교의 공통된 주안점을 정한 “2018 가을 통찰의 날”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. 마리아니스트 펄스 (PULSE: 도시적 리더십, 봉사, 교육의 협력자) 자원봉사 공동체가 위치한 다코타 센터, 마리아 전도단 협동조합, 파이브 오크스 네이버후드 성체교회 등의 팀들은 인종분리, 식량부족, 빈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마리아니스트와 연계된 세 가지 사업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. 경청회와 도시정원 가꾸기, 이웃을 위한 식사봉사 및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, 그 밖의 관련행사는 관계를 쌓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산과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1 년 후 열린 2019 년 마리아니스트 세계기도의 날 모임에서는 각각의 계획과 참여방법에 대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[daytonmarianist@gmail.com](mailto:daytonmarianist@gmail.com) 으로 문의바랍니다.